

第8回 語學研究會 言語理論分科 討論會記錄

主題：意味의 表現：解釋論 對 生成論

司 討 論 者	會	張	奭	鎭 (서울 大)
	論	金	韓	坤 (서울 大)
	者	朴	秉	洙 (慶熙 大)
		梁	東	暉 (梨花女大)
		梁	續	錫 (外國語大)
		李	廷	玟 (서울 大)
		李	鴻	培 (陸 士)

내 용

I. Retrospect

1. Interpre(ta)tive: Standard Theory (ST); Extended Standard Theory (EST) (cf. lexicalist)
Generative: Generative Semantics (GS) (cf. transformationalist);? Extended Generative Semantics(?EGS)
2. Deep structure (is necessary?)
3. Lexical decomposition (is desirable?)
4. Logical/semantic structure
5. Quantifiers
6. (Co-) Reference
7. Focus and 'Presupposition'
8. Deixis/indexical expressions/points of reference/possible worlds
9. Performative analysis and Illocutionary forces.

II. Prospect

해 례

1. ST: $(P_1, \dots, P_i, \dots, P_n)$

$$\downarrow$$

$$\downarrow$$

$$P_i$$
: deep structure

$$P_n$$
: surface

$$S$$
: semantic representation

- EST: $(P_1, \dots, P_i, \dots, P_n)$

$$\swarrow$$

$$\downarrow$$

$$P$$
: phonetic representation

- GS: a. $SR(=P_1, \dots, P_n)$

$$SR$$
: semantic representation

$$PR$$
: presupposi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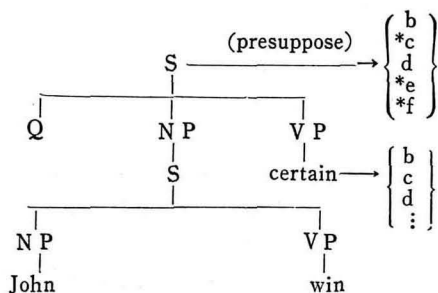
$$Top$$
: topic

$$b. SR(P_1, PR, Top, F, \do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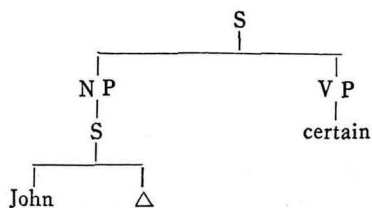
$$F$$
: focus

2. grow-growth, refuse-refusal, (*aggress)-aggression, (*auth(author))-author, ...
3. a. The thief killed the nurse.
b. Harry reminds me of a gorilla.
a' CAUSE-BECOME-NOT-ALIVE *kill*
b' STRIKE-SIMILAR *remind*
4. John grows tomatoes.
a. John CAUSE/[+cause] [tomatoes grow]
b. John [+cause, grow] tomatoes
5. daughter
a. DAUGHTER(x, y)
b. FEMALE(x) & CHILD (x, y)
6. a. We loaded the truck with hay.
b. We loaded hay onto the truck.
7. a. X rent Y to Z
b. X rent Y from Z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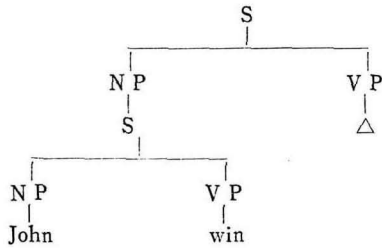
8. a. RENT (x, y, z)
b. Agent, Object, Goal, Source
9. a. I lent Tommy bicycle until tomorrow.
b. *Until tomorrow I lent Tom my bicycle.
c. *Jack stayed in his room until tomorrow.
b. 내일까지 그 일을 시켰습니다.
10. a. Every American wants to be rich.
b. Every American wants every (other) American to be rich.
11. a. John didn't date many girls.
b. Many girls weren't dated by John.
12. Only Muriel voted for Hubert.
a. Muriel voted for Hubert and no one other than Muriel voted for Hubert.
b. Muriel and no one other than Muriel
c. Muriel and only Muriel
d. Only Muriel
} voted for Hubert.
13. a. Few rules are explicit and few rules are easy to read.
b. Few rules are both explicit and easy to read.
c. The few rules are explicit and the few rules are easy to read.
d. The few rules are both explicit and easy to read.
14. a. Max_i denies that he_i kissed the girl who he_i kissed.
b. Max_i denies that he_i kissed the girl who he_i kissed, and so does Fred.
15. John is looking for a secretary who knows Mongolian.
16. (Is John (certain (to win)))?
17. a. No, John is certain to LOSE.
b. No, John is likely not even to be NOMINATED.
c. No, the election will never take PLACE.
18.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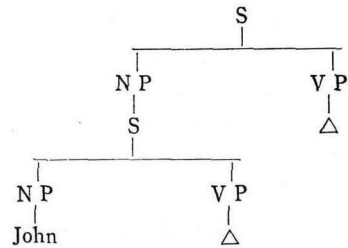
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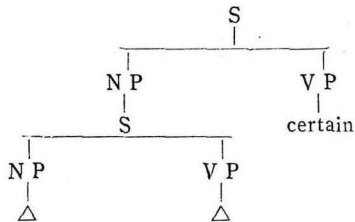
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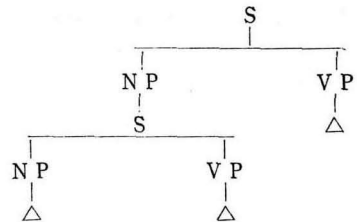
d.



e.



f.



19. a. John_i has stopped beating his_i wife. b. John_i has beaten his_i wife.
 20. a. John은 그 책을 읽었다. (topic)
 b. John은 그 책을 읽었다. (contrastive focus)
 21. a. Come to the office.
 b. Go to the office.
 c. Let's go to office.
 d. *Let's come to the office.

사 회 : 언어이론분과 토론회의 사회자로서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그간의 준비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토론주제에 적합한 topic을 미리 토론회에 참가하시는 panel member들에게 골라 주십시오 부탁을 드리, 보내주신 항목과 예문들을 다소 조정하고 손질을 가해 여기에 이렇게 배열해 보았습니다. 오늘 어학연구회에서 발표된 논문의 내용과 논의된 부분도 있어 중복되는 바도 있겠으나 오늘의 토론회를 대충 이 항목순으로 진행할까 합니다. 그리고 언어학이론이 앞서 있는 곳에서는 벌써 몇해 전부터 논의되어 왔고 그런 점에서 해석론 대 생성론의 의미표현이라는 오늘의 주제는 최신의 것이 되지는 못하겠으나 저희 나름대로 크게 회고(retrospect)와 전망(prospect)으로 나누어 주제와 관련된 여러 문제점을 실례를 들어 검토하고 토론해 나갔으면 합니다. 그럼 해석론, 생성론 두 파의 역사적 배경을 이정민 선생께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이정민 : 해석론(해석의미론:interpretive semantics) 생성론(생성의미론:generative semantics)의 양파가 갈라지게 된 역사적 배경을 간단히 이야기하면 먼저 Chomsky의 "Aspects"와 Katz·Postal의 가설(hypothesis)을 중심으로 한 표준이론(standard theory)에서 통사부(syntactic component)가 생성적인데 비해 의미부(semantic component)와 음운부(phonological component)가 해석부(interpretive component)로서 역활한다는 것이죠. 표준이론에서는 의미부가 심층구조(deep structure)에, 심층구조하면 기저구절표지(underlying phrase marker)하고 어휘항목(lexical item)들에 의미해석(semantic interpretation)을 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Aspects"에 이미 양파(兩派)의 씨앗이 다 들어 있지만 "Aspects" 이후 좀더 추상적인 방면으로 파고 들어간 것이 생성론의 입장이고 해석론은 표준이론보다 좀더 의미해석의 폭을 넓

혀 가지고 단지 심층구조에서만 의미해석을 가하지 않고 중간구조(intermediate structure)와 표면구조(surface structure)에서도 의미해석이 가능하다고 본 것입니다. 그리고 확대표준이론(extended standard theory) 즉 해석론은 Chomsky가 스스로 수정한 표준이론과 자기이론에 동조하는 Jackendoff와 같은 사람들을 옹호하면서, 생성론으로 받기를 든 사람들에 대해서 내놓은 계열이고, 어휘론자(lexicalist)·변형론자(transformationalist)의 구별도 결국은 명사화(nominalization)를 둘러싼 싸움에서 변형(transformation)에 의한 명사화를 할 것이냐, 혹은 심층구조의 어휘부(lexicon)에서 취급할 것이냐는 차이에서 분기된 것으로 결국 해석론과 생성론이 두갈래(dichotomy)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사 회: 두 편의 배경 설명을 해 주셨는데 해례(I)에 해당되는 것 같고, 명사화의 문제에서 어휘론자와 변형론자들의 이야기가 설명되었습니다. 그 다음 해체분석(decomposition) 문제와 함께 growth는 grow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었는데 aggression은 *aggress는 없다하는 문제와 결들여서 박병수 선생께서 좀 말씀해 주시죠.

박병수: 동사에서부터 파생되어 나올 수 있는 명사인 growth와 refusal같은 것들은 변형에 의해서 grow와 refuse에서 온다고 할 수 있는 반면에 실제로는 동사형이 없는 명사가 있게 되어 이러한 현상을 변형론자들이 변형으로 유도하는데 난점이 많으므로, 어휘부에서 처리하면 더 쉽지 않겠느냐는 논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 회: 이 문제에 대해서 G. Lakoff는 실제로 있지 않은 것이라도 집어 넣어야 한다고 했는데 양인석 선생께서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양인석: Chomsky는 "On nominalization"에서 명사를 세 개의 범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제시된 자료들만 갖고 본다면 초기의 생성론자들이 grow와 growth의 관계에서 볼 수 있듯 어휘(lexicon)를 변형으로 유도할 수 있다는데 대해 어휘론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 aggression같은 것은 aggress가 없는데 어떻게 만들어 내느냐고 반격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G. Lakoff는 1965년의 논문에서 주장하기를 보다 중요한 것은 가능어휘개념(the notion of possible

lexical items)이라 하여 현재는 없지만 후에 쓰이게 되면 그때에 영어단어로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여, 예를 들면 television에서 televise가 나온 것이지 televise가 있고 거기서 television이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단어형식에서 deformation이 있고 또 어떤 accidental gap으로 어려운 것이지 내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 하여 방어하고 있습니다.

이홍배: Chomsky도 그러한 이야기를 음운론에서 하고 있습니다. 즉 음운론적으로 영어의 한 단어가 될 수 있음에도 accent로 표현했다는 것을 부정할 만한 근거는 없다고 Chomsky가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휘항목(lexical item)에 관한 한 안된다는 것이 어떤 면에선 Chomsky 자신이 이를 배반적인 것 같습니다. 음운론은 가능한 한 sequence다. 실제하지는 않지만 영어에 가능한 것이라 하면 마찬가지로 논의되고 있는 이 문제도 실제로는 없지만 가능하다는 논리가 성립됩니다.

양동휘: 한가지 첨부할 것은 가능한 어휘항목이니까 유도해 내는 것이 가능하지 않느냐는 생성론의 주장도 단점이지만 실제로 유도해 낸 source form이 비문법적이라는 증거로 G. Lakoff가 꼭 이 경우를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규칙(rule)이 어떤 항목(item)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예외규칙자질(exception rule feature)을 내놔는데 이것은 음운론에서 많이 적용됐고, "Aspects"에도 나와 있어서 [-passive] 규칙자질(rule feature)이 나옵니다. 만약에 규칙자질이 우리 문법에 꼭 필요한 것이라면 source form이 비문법적이니까 이것을 어휘부(lexicon)에 넣어야 한다는 주장은 좀 약해지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사 회: G. Lakoff의 규칙자질까지 나왔는데요, 심층구조가 필요한 것이냐 하는 논의가 재연되는 듯 하고 앞서의 논의가 연장되면 어휘해체분석(lexical decomposition)과 관련이 되리라 보는데 이에 대해 이홍배 선생께서……

이홍배: 해석론이나 생성론이 설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차이가 있으므로 두 이론의 비교라는 점 자체가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근래 G. Lakoff의 말을 빌면 Chomsky는 언어의 상응한 내용을 마음대로 한정해 놓고 그 안에서 하려는 것 같다고 합니다. 실제로 언어는 그런 것이 아니고 Chomsky가 하

지 않은 분야도 요새 사회언어학의 등장으로 그 중요성이 대두되고 오늘 언급된 회화의 제약(conversational constraint) 등 여러가지 조건들이 언어기술에 들어가야 됩니다. 심층구조라 하면 Chomsky가 말하는 통사부를 뜻하는 심층구조인데 이의 필요성 여부를 여기서 단정적으로 이야기 할 것은 못 되고 어휘해체분석 등 앞으로 논의하다 보면 확인되리라고 봅니다.

사 회: 박병수 선생의 발표에서도 어휘해체분석이 중심과제였고, 나가다 보면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자주 나오겠습니다. 그럼 말씀을 하려다가만 이정민 선생께서 해례 (3)을 이용해 말씀해 주십시오.

이정민: 제 이야기는, 어휘해체분석이 추구하는 것은 결국 보편적 의미요소(universal semantic prime)를 찾으려는 것인데, 언어마다 다 통용될 수 있는 의미의 원초적인 요소란 과연 무엇이나 하는 것과, 그것을 찾았을 적에 어떤 linguistic generalization을 얼마나 더 크게 하느냐는 대전제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로 remind 동사의 논쟁에서(3b 참조) similarity predicate (SIMILAR)하고 STRIKE하는 해체분석의 예에서 연상을 시키는 과정에 여러가지 가능성이 있으므로 결국 similarity predicate와 strike, perceive 등의 상위술부(higher predicate)하고의 연결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반론인데 사실 연상을 가능케 하는 심리적 과정은 유사성(similarity)만은 아닙니다. 사실상 근접성(contiguity)의 연상도 가능해서 해체분석할 때 similarity뿐 아니라 closeness 즉 어떤 event간에 근접성이 존재하느냐에 따라 되기도 합니다. 즉 Nick's는 Bloomington에 있는 술집인데 Nick's reminds me of Mr. Lee.라고 하면 Nick's만 보면 Mr. Lee가 생각난다는 것인데 그 연상의 근거는 이를테면 Mr. Lee가 늘 Nick's에 가서 살기 때문입니다. 그럴 경우 여기에는 근접관계(contiguity relation)만 있는 것이지 Nick's와 Mr. Lee에 외양상의 유사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의미요소를 유사성으로만 잡을 것은 아니고 근접성도 가능한 의미의 요소란 말입니다. 그러면 remind의 애매성은 저절로 해소됩니다. 왜냐하면 remind에 두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다면 그것은 내용을 이루는 의미요소가 두가지 있으므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체분석 자체에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애매성을 파악하지 않았다는 정도의 잘못에 불과하지 필요성 자체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 회: 김한곤 선생께서 말씀 좀 해 주시지요.

김한곤: 박병수 선생께서 어학발표회에서 (박병수 발표논문 참조)드신 예 중에서 유사성은 대칭성(symmetry)이 있어야 하므로 구절표지(P-maker) 선에서 앞뒤로 바꿀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박병수 선생께서 내주신 예문, Max is similar to Pete.가 Pete is similar to Max.이 되는데 Max reminds me of Pete. Pete reminds me of Max. 이것은 뜻이 다르다고 하셨는데 그런 뜻의 차이는 Postal이 준 구절표시 자체에서 이미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구절표시가 된 이상 이것을 변형하는 과정에 이 구절표시의 연속성(continuation)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지 않은가, Max나 Pete중에 어느 것을 선정한다는 뜻이 구절표시에 나타나 있는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정민 선생과는 초점이 다릅니다만 그렇게 해결되지 않을까 합니다.

박병수: 그런데 구절표시 자체가.....

김한곤: 그것이 가능한 것은 대칭성에서 Max is similar to Pete.와 Pete is similar to Max.가 취급되는 면에서 같은 것이지 말하는 사람의 의도면에서는 누구를 기술의 대상으로 하는가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즉 구절표시상의 순서(order)로써 그 의도가 표시되는 것으로 보면 위우리라고 봅니다. 말하자면 a. Max reminds me of Pete.와 b. Pete reminds me of Max.에서 물론 그 자체로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것을 구절표시로 나타내면 a는 Max가 b에서는 Pete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표시되지 않는가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박병수: 그렇게 되면 한가지 설명방법은 될 수 있겠죠. 저는 Postal이 그런 설명을 안 했으리라 보고 물론 a와 b에서 Max와 Pete가 각각 앞으로 오는 경우도 결국 Postal의 분석에 의하면 심층구조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Pete와 Max가 표유문(embedded sentence)에서 SIMILAR를 동사로 하여 주어, 동사로 본 것이 있으나 SIMILAR자체가 대칭적(symmetric)이므로 어느 것을 주어로 바꾸어 놓든 같은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김한곤 : truth value에는 차이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박병수 : 그렇습니다.

김한곤 : 그것은 화자(speaker)가 말하고자 하는 초점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박병수 : 저도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알 수 없는 일이고 심층구조를 그렇게 잡은 분들이 설명을 해야겠지요?

이홍배 : 한글학회 50주년에 참석했던 Fillmore의 말을 빌면 Chomsky가 다른 이론은 모두 자기 이론의 표기적변이(notational variant)에 불과하고 전부 틀렸다고 합니다. 그러한 Chomsky의 주장이 옳지 않다고 하려는 것이 곧 어휘해체분석을 하게 된 동기라고 보는데 그것이 처음 격문법(case grammar)에서 시작되어 생성론쪽에서 더욱 발전시킨 것 같습니다. 생성의미론(생성론)이 표준이론의 한 표기적변이라고 최초로 말한 것이 Chomsky의 논문 "Deep structure, surface structure, and semantic interpretation"에서이고 실제로 어휘해체분석은 G. Lakoff가 "Syntactic Irregularity"에서 시작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어휘해체분석이 실제로 나오게 된 원인은 해석론자들의 난점이 어휘부(lexicon)에 arbitrary한 feature를 무더기로 내던져 놓고는 해석(interpret)하면 된다는 식이었는데 통사(syntax)에 대한 연구가 깊어짐에 따라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해석하면 된다는 식 어휘부에서 어떤 표시를 하여 해석하면 된다는 식으로 하니까 나중에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고 설명이 주어져야겠다는데서 어휘해체분석이 시작된 것이죠. 가령 박병수 선생께서 든 예문 Harry almost killed Fred.의 문장에 3개의 뜻이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2개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는 행위(action)일 때와 또 하나는 결과(result)로서 말입니다.

④ Harry almost caused Fred to become not alive.

⑤ Harry caused Fred to almost become not alive.

⑥ Harry caused Fred to become almost not alive.

⑧의 경우 almost가 cause행위동사에 걸리나

⑥⑧에서는 become에 걸립니다. become은 결과로 보기 때문에 almost가 결과를 수식하는 것으로 봅니다. 실제로 이렇게 표시하는 것이 kill에 [+action]과 [+result]라고 표시하는 것보다 말을 기술하는 학문이라는 언어학의 입장에서 볼때 일보다 더 전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질(feature)로 나타내는 것이 좋은지 구조로 나타내어 설명하는 것이 좋은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사 회 : Chomsky가 처음 이야기한 것이 "Remarks on nominalization"에서였고 해례(4)의 John grows tomatoes.에서 (4b) [+cause, grow]와 같이 표시하여 어휘에서 취급하는 것이 보편적이니까 영어의 문법에서는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G. Lakoff 식으로 (4a)를 나타낸 것 같습니다. 박병수 선생께서도 언급하셨지만, 그러면 이것이 모든 언어에 공통된 것이라 할 때 과연 영어문법 기술에는 필요가 없겠는가 하는 문제를 어떻게 처리 해야겠습니까?

박병수 : 이 문제는 이정민 선생께서도 지적했듯이 의미요소를 찾으려는 방법의 하나로는 환영할 만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의미요소 (semantic primitives)를 바탕으로 통사심층구조를 없애고 의미표시(semantic representation)를 심층구조로 삼아 문장을 유도하려는 데서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니까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지 의미요소를 찾아야 한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 회 :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CAUSE, BECOME등을 의미요소로 가정한다면 일종의 universal statement식으로 하자는 제안도 나올 법한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양동휘 선생께서...

양동휘 : 박병수 선생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잠깐 부연하면 해석론이나 생성론이나 의미의 실체(semantic substance)에 대한 연구는 다 같이 하는 것인데, 생성론에서는 어휘해체분석을 해놓은 의미구조를 곧 심층구조로 보아 G. Lakoff가 하듯이 통사구조와 의미구조를 동일시한 점 즉 의미구조도 구조적이라 하는데 반대한다고 하신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동감이 갑니다. 의미구조가 구조적이라고 볼 motivation이 많다고 주장하나 그것이 먼저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박병수 : 어휘해체분석과 가능어휘개념(the no-

tion of possible lexical item)이라는 뜻과는 확실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해례 (1)에 있는 심층구조에서 McCawley가 술어올리기(predicate raising)를 적용하여 의미구성의 요소를 한꺼번에 한가지에 올려 놓고 전체를 하나의 어휘항목으로 대치시키는 이유는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지만 일어날 수 있는 어휘를 설명하려는 의도임이 분명합니다. 이와 같이 어휘해체분석을 하면 그 개념은 설명이 되는데, 하나 설명이 안 되는 것은 *kill*, *remind*의 경우 의미상으로는 복합어인데 실제로 문장에서는 복합어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단일형태소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분명한 gap이라고 보는데 어휘해체분석으로써는 이것을 뛰어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gap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Postal이 던지시 암시하기를 McCawley처럼 술어올리기를 주기적으로(cyclically) 적용하여 어휘삽입(lexical insertion)을 할 것이 아니라 그와는 반대로 *kill*의 경우 CAUSE만 남기고 그외의 것은 소거한다면 *kill*이 단일형태소라는 것을 반영시킬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결국 가능어휘개념이 곤경에 빠지는 어려움이 생기겠죠.

사 회 : *kill*, *remind*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해례 (9)같은 예문은 Kajita를 비롯해서 McCawley가 자주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lent*와 *until tomorrow*의 연결은 어휘해체분석을 뒷받침해 주는 좋은 예로서 이정민 선생의 발표에서 언급된 cognize의 분석과 제가 같다고 하였습니다. *until tomorrow*가 어느 부분에 걸리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이정민 선생께서 말씀해 주시죠.

이정민 : 해례 (9)는 *lent*를 해체분석하는 예로 “내 자전거를 내일까지 가지고 있도록했다”라는 뜻이겠습니다. “내일까지 가지고 있게”라는 하위술어(lower predicate)에 *until tomorrow*가 걸리면 문법적인 문장이 되나 (9b)와 같이 *until tomorrow*가 앞으로 옮겨지게 fronting되면 이 부사구가 *cause*에 걸리게 되어 가지고 있는 기간이 내일까지라는 뜻이 아니라, 가지게 하는 기간이 내일까지라는 비문법적인 내용을 낳게 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따라서 *until tomorrow*가 하위술어(lower predicate)를 수식한다고 봐야 (9a)의 문법성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lent*라는 단일형태소가 해체분석되어야만 문법적인 현상이 깨끗

이 해명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 회 : 이것은 어휘해체를 해야 한다는 중요한 증거가 되겠습니다만, 적용이 다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양인석 선생께서 이와 관련해서 한 말씀하시죠.

양인석 : 회고(Retrospect)의 항목(2)에서 심층구조가 필요하나 또는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문제와 관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방금 이홍배 선생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심층구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는 못할 것입니다. Chomsky가 주장하는 심층구조가 구절구조규칙이 적용되고 어휘삽입이 전부 시작된 단계까지라고 하는데 McCawley가 *kill*을 논리표시(logical representation)로 하려니 어휘항목이 다 들어가지 않아서 되지를 않아요. 박병수 선생께서 발표하신 것처럼, 어휘화(lexicalization)도 일종의 변형이므로 변형이 먼저 적용되고 어휘가 들어가기까 어휘삽입이 동시에 되지 않는다 하여 Chomsky가 주장하는 심층구조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휘해체분석에 사역(causative)의 문제가 나오는데 해례 (9)가 좋은 예로 *cause*가 들어가지 않으면 *until*을 설명할 길이 거의 없게 됩니다. 이로써 McCawley, G. Lakoff가 개가를 올린 것입니다. 또 하나 Morgan이 *almost*를 제기하여 *John almost killed Mary*에 3가지 뜻이 있는데 이것은 *almost*가 어디에 걸리느냐에 의해서 결정되며 따라서 동사 *kill*이 분석되어야 한다고 해서 어휘해체분석을 뒷받침한 것입니다. 그런데 해석론자들이 생각해 보니까 어휘해체분석하는 의미요소와 표면구조의 동사와 동의어(synonymy)란 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어떻게 동의어란 전제로 어휘해체분석을 할 수 있는냐고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이 쪽에서는 동의(synonymy)에는 여러가지가 있으며 cognitive synonymy를 주장하는 것이지 stylistic synonymy 까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 표시를 하는 관점에서 cognitive synonymy를 쓰는 것이 좋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synonymy에 대한 이견이 해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의미해석규칙(semantic interpretation rule)을 적용하는 데에도 다시 어휘해체분석에 가서 규칙을 세워야 하는 것으로 실제로 규칙을 만들어 낼 때에는 생성론의 분석을 해석론

의 규칙으로 적용해야만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나 어느 것이 맞다 틀리다 하는 것보다 양편의 논쟁이 더 진전되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겠지요.

양동휘 : 양인석 선생께서 **생성론**과 **해석론**에서 말하는 동의(synonymy)의 개념이 서로 엇갈렸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달리 생각합니다. 즉 **생성론**에서 말하는 동의의 개념이 **해석론**이 주장하는 동의의 개념과 다르다고 말씀하신 뜻을 **생성론**에서 변형이 의미를 변화시킬 수도 있다는 의미로 제가 이해했는데 G. Lakoff가 말하는 심층구조에는 presupposition, topic, focus등 문장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의미가 들어있으므로 **생성론**에서 변형은 절대로 의미를 변경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양인석 : 양동휘 선생이 말씀하신 것이 맞죠. G. Lakoff는 바람에 날아가는 것도 기분이 이상하면 뜻이 달라진다고 하여 그런 것도 의미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Hasegawa, McCawley, Postal이 최근에 함께 내놓은 책을 보면 Hasegawa는 **생성론**의 기저표시를 정의하기를 모든 의미의 차이는 기저표시에 나타나야 된다고 하여 Linguistic Inquiry에서 McCawley를 공격했음니다만 이에 대해 McCawley와 Postal이 응수하기를 어느 정도 한계가 주어져야지 꼭 그렇지는 않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그 한계라는 것이 신빙성은 없지만 양동휘 선생께서 말씀한 것처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사 회 : 동의어의 문제가 논의되다가 그 한계가 어디까지냐는때까지 언급이 됐는데 동의어 문제와 관련해서 Fillmore의 격문법에서 문제가 되고 많이 논의되고 있는 (6a), (6b) 같은 문장을 중심으로 하여 김한곤 선생께서 말씀해 주시죠.

김한곤 : Fillmore의 생각에는 (6a), (6b)의 두 문장이 같은 현실을 기술하는 것으로, 어떤 의미에서 보면 동일하기 때문에, 같은 심층구조에서 유도해야 하지 않을까 보는데 양동휘 선생께서 말씀하셨듯이 변형이 의미를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던 이것은 동일심층구조에서 유도하는 경우 두 문장이 똑같은 뜻을 가져야 하겠고 만일 의미를 변경시킬 수 있는 변형이 있다면 의미가 달라질 수 있겠지요.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동일하지만 모국인이 보기에는 (6a)는 “트럭이 전 초로 가득 찼다”는 뜻이고 (6b)는 반드시 그렇지 않은 것도 암시하기 때문에 결국 사실상에 있어서도 (6a)가 진실인 경우 (6b)가 진실이라거나 (6b)가 진실인 경우 (6a)가 진실이 아니라 할 경우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해석론**과 **생성론**과의 논쟁에서 **생성론**에 대한 반례(counter-example)가 될 것 같습니다. 만일 *with hay*를 기구격 (instrumental)이라 보고 *onto the truck*을 처소격 (locative)으로 보는 경우——일률적으로 볼 수 있는 점도 있는데——그렇게 되면 We loaded the truck with hay with pitchforks. 같은 문장의 경우 기구격이 또 한번 나타날 수 있는데...

이홍배 : *with hay*가 기구격이 아니고 patient 겠지요.

김한곤 : 기구격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기구격인 점이 있다는 말이지요. 문제점도 있지만 이런 경우 두 문장의 의미가 동일하지 않지요. 그런데 이를 동일하게 봐 가지고 양쪽을 같은 심층구조에서 유도하는 그런...

이정민 : 그것은 생성론에서 (6a)와 (6b)가 동일하다고 주장한다기 보다는 Fillmore가 자신의 격문법을 옹호하기 위해서 (6)의 *with hay* 하고 (6b) *hay*에서 *hay*의 격을 같은 것으로 보려니까, 그런 억지가 나왔다는 정도로 맞추어야 합니다.

김한곤 : 이 두개의 문장을 생성론자의 입장에서 볼 때의 난점은 변형이 의미를 엄격히 견지한다면 양쪽 문장의 심층구조를 전혀 달리 설정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깨끗이 될지의 의문입니다.

이정민 :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논리구조가 있고 거기 따르는 presupposition, focus등 표면구조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여러가지 의미해석이 다 기저구조 어디엔가 존재한다는 전제가 있다면, 이러한 표면구조가 나오기 위해서는 기저구조에 논리구조 아닌 부분을 논리구조화하여, 표면에 이르게 하는 과정에서 presupposition, focus, 혹은 topic등 이러한 의미의 제요소가 어느 부분에서 자꾸 논리구조에 영향을 주어 가면서 derivational constraints 혹은 transderivational constraints등의 작용을

받아 표면에 이르러서 비로소 달라지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기저구조에서 이미 의미가 다른 어떤 점이 표시된다고 보아야겠지요.

김한곤 : 그렇지요. 그럼 문제는 지금 이정민 선생께서 말씀하시기를 presupposition, focus등의 여러 의미 표시를 기저에 넣는다고 하셨는데 그중에 presupposition으로써 focus문제일 것 같은데 의미 표시에 있는 어떤 것이 (6a), (6b)에 나타나는 의미차의 원인이나는 문제가 있겠습니까.

이홍배 : (6a)는 꼭 찾다는 뜻이고 (6b)는 반드시 꼭 차있다는 뜻은 아닌 것으로 하느냐는 것은 conveyed meaning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리고 해석론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생기는 것은 (6a)는 꼭 찾다는 의미로 (6b)는 꼭 차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설명하려면 그것을 해석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김한곤 : 비슷한 예문으로 David planted his garden with corn.과 David planted corn in his garden.에서 후자는 꼭 찾다는 의미보다도 옥수수만이 심어졌다는 뜻이죠.

이홍배 : 꼭 찬거나 마찬가지로. 그 정원 전체에 다 심었다는 얘기입니다.

김한곤 : 꼭 찾기 때문에 다른 것은 못 심는다고요.

사 회 : 이것은 격문법의 한계점을 뜻하는 것 같고 다음 해례 (7)도 격문법에서 문제될 것 같은데 논리구조와 관련시켜 논의해 보죠. 양인석 선생께서...

양인석 : 해례 (6)부터 말씀드리겠는데 역사적으로 변형문법의 변천을 살펴 보면 처음 B.H. Partee가 그의 M.I.T. 학위논문에서 변형으로 두 문장을 연결시킨 이후 B. Fraser가 부분적인(partitive) 뜻과 전체적인(wholistic) 뜻이 있어 의미가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6a)는 가득 찼다 (6b)는 그렇지 않다는 뜻으로 보았습니다.

John jammed the pencil into a jar. John jammed the jar with pencils.에서 전자는 연필을 하나 넣은 것이고 후자는 가득 채웠다는 뜻이겠죠. 만일 John jammed the jar with a pencil.했다면 연필 한 자루가 유리병 입구만큼 한 것이겠지요. (7)의 rent는 누구에게 빌려 온 것도 빌려 준 것도 다 됩니다. 비슷한 예로 pour, evolve 가 있는데 이를

설명하는 방법이 여럿 있을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논리표시로 본다면 rent 를 predicate로 X, Y, Z argument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전치사가 간과되기 때문에 적당한 의미를 찾아낼 수 없습니다. 해결방안으로는 격문법을 취하지 않고 rent를 두개의 범주로 나누어 to, from을 사용하면 잉여(redundance)가 생깁니다. 다음에 격문법으로 본다면 이것은 하나는 처소격(locative)이고 또 하나는 목표격(goal)이라고 하겠지요. 그런데 격문법이 어떤 방안을 제시하는 듯 하면서 곧 벽에 부딪혀요. 왜냐하면 Birds sing in (or on) the tree.이 문장에서 in, on은 처소격이 되겠는데 in 과 on 은 뜻이 서로 다릅니다. 그렇다면 처소격 하나로는 불충분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다음으로 가능한 방법은 생성론(생성의미론)의 입장에서 in과 on을 두자리술어(two place predicate)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 아니겠느냐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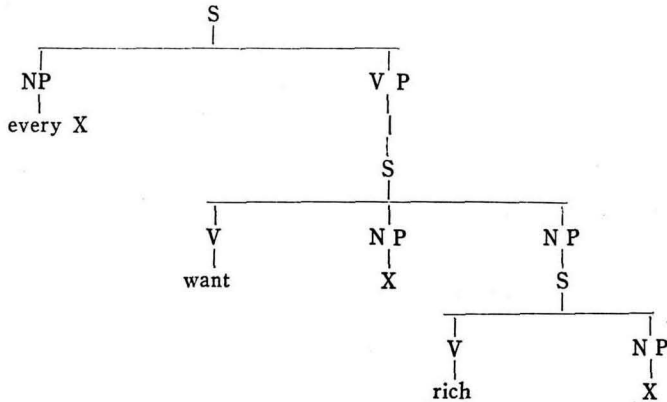
양동휘 : (6)이 실제로 생성론에 불리한 예문일 수도 있죠. (6a)와 (6b)를 기저구조에서 conveyed meaning의 차이로 나타낼 수가 있고 나중에 conveyed meaning의 차이가 (6a), (6b)에서 truck과 hay의 어순의 차이와 연결시킵니다. 연결짓는 것은 global constraint 또는 transderivational constraint로 가능합니다. 생성론이 물론 이 문제를 기술할 수는 있지만 설명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난점은 정해진 기저구조에 표시된 (6a)와 (6b)의 차이 즉 conveyed meaning의 차이가 어순의 차이로 나타나는 이유가 global constraint로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럼 해석론자와 Fillmore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겠는가? 제가 보기에는 더 나은 것 같지 않습니다. 다만 생성론이 심층구조에 근거를 두고 어순을 이야기한다는 점에서 (6a)와 (6b)의 전체적인 것과 부분적인 것의 차이를 표면구조에 직접 맺는다는 점에서 유리할는지 모르겠으나 주목할 바는 못될 것 같습니다.

사 회 :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양화사(quantifier)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하죠. 논리학에서 취급되는 것이지만 변형문법에서도 근래 여러가지로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문제로 이 모임에서도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해례 (10)이 되겠는데, 그전에 양인석 선생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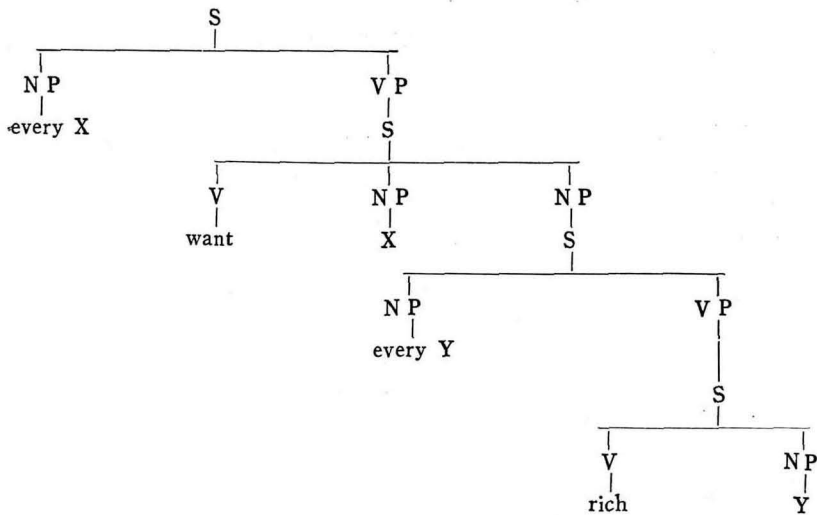
양인석 : 양화사(quantifier)의 문제는 오늘 이기용 선생께서 발표하신 몬테규 문법(Montague grammar)이 유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즉 양화사의 설명에는 생성론에서 설명할 수 없는 영역까지 해석할 수 있는 것이 그 장점이라고 하겠으나 통사 부분이 견고하지 못한 까닭에 의미론에서 논리표

시를 아무리 훌륭히 해 놔도 쉽게 신빙성이 가지 않는다는 것이 제 인상입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에 통사부까지 포함해야 언어학이지 의미표시만 잘 해 놓는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10)의 본문을 G. Lakoff는 다음과 같이 tree diagram을 그리고 있습니다.

(10a) Every American wants to be rich.



(10b) Every American wants every American to be rich.



(10b) 문장일 때에는 변항(variable)이 두 개가 됩니다. 결국 X 자신이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Y가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지난번 McCawley가 한국에 왔을 때 물어 봤지만 명확한 답을 하지 않고 어물어물 넘어갔습니다. 이기용 선생도 언급하셨

지만 Every American wants every American to be rich의 내용을 A,B,C 세개로 보고 every American도 A,B,C라고 보면 A가 A,B,C가 각각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B와 C도 각각 A,B,C가 전부 부자가 되기를 원해야 Every American wants every American to be rich. 되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X자신까지 포함해야만 합니다. 여기에 Y만 넣을 것이 아니라 X까지 넣어야 적당한 표시가 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기용 : Y에다 넣어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X, Y가 다른 것이 아니라 Y도 A, B, C를 포함하고 X도 A, B, C를 모두 포함합니다.

양인석 : 그러면 몬테규 문법적이지 않습니다.

이기용 : A가 자기도 포함시킵니다.

이정민 : X와 Y가 같을 수도 있지요.

양인석 : X, Y를 써도 같이 자신을 포함시킬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이홍배 : Y만 쓰면 앞에도 Y를 또 써 주어야겠죠. 그 논리에 따르면 여기에 Y만을 써두는 것이 아니라 저기도 X, Y를 모두 다 써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 회 : McCawley는 *every other American* 일때 Y는 X와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지요.

이기용 : *Every American wants an American to be rich.*에서 가령 *every American*에 A, B, C가 있다고 하면 *an American*을 A로 봐요, 그러면 A도 A가 부자가 되는 것을, B도 A가, C도 A가 부자가 되는 것을 원하게 되지요.

양인석 : 난 지금 혼동이 되는데 원하는 사람과 부자되는 사람이 같다는 index에 coreference를 주기 위해서 X라 한 것이고 원하는 사람과 부자되는 사람은 다른 범주이기 때문에 McCawley는 그렇게 준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ndex를 두 개 준 것입니다. 이기용 선생처럼 이런 구별 없이도 두가지의 뜻이 똑같아진다면 제가 더 연구해야 되겠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기용 : 예, variable입니다. X가 variable이니까...

양인석 : 물론 variable이지요.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variable은 여기는 A, B, C를 상정할 수 있더라는 전제하에서만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coreference를 다시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원하는 사람을 X의 범주로, McCawley는 그렇게 해석을 안 했어요.

이기용 : 이해를 하나 coreference가 성립이 안되지요.

양인석 :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이지요. coreference가 설명이 안 되면, 그 이유는 이 *every American* 속에는 자기 자신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X, Y는 이야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원하는 사람은 X범주에 들어 가고 부자되는 사람은 Y가 되는데 그렇게 해석하게 되면 잡탕이 되어 버리고 맙니다. McCawley가 하려는 것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것이 됩니다.

이기용 : *every*가 있기 때문에 X가 A, B, C도 되고 Y도 A, B, C가 되지, 만일 index에 존재양화사(existential quantifier)가 있다고 한다면 *every* X가 되어 있으므로 가령 domain에 A, B, C되면 *every*했을 경우 $X: \{A, B, C\}$ 가 됩니다. *every* Y를 해도 마찬가지로 *every* Z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만일 이것이 아까 한 것처럼 *every*로 하지 않고 *an American*이라고 했다면 그럼 존재양화사이므로 여기에 Y라 하면 *every American*의 경우 모두 되는 것이고 *an* Y 했을 경우 A가 되는지 B가 되는지 C가 되는지 model을 설정해야겠고 A만 있는 model인 경우는 *an* Y는 A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정민 : specify되는 것이지요

이기용 : specify되는데 이런 상황같으면 *Every American wants an American to be rich.*일 경우 A는 B가, B는 B가, C는 C가 부자되는 것을 원하는 것인데 이럴 경우에도 맞고 그다음 A는 A가, B는 A가, C는 A가 부자 되기를 원하는 상황에서 맞습니다.

양인석 : 그점 여기서(10a의 도해)는 어떻게 됩니까?

이홍배 : 그것은 같지 않아요.

이기용 : (10a)의 경우 X를 A로 쳤다고 하면 그 경우는 A-A, B-B, C-C만 됩니다. A-A, B-B, C-A의 경우는 문장이 안 되겠습니다.

사 회 : *other*가 괄호 속에 있는데 *other*를 표면에 살려서 *every other American*하면 이 구조의 끝에다 X와 Y가 동일하지 않다는 것만 추가하면 되겠죠. 아까 말씀하신대로 X, Y 자체는 range가 표시 안 되었지만 같을 수 있고 *other*가 들어 가면 X, Y가 지적하는 것이 동일하지 않다고 명시해두면 McCawley의 의미표시가 일단 이해되겠습니다. 그 다음 해례(11)도 quantifier의 문제인데 이것은 부

정(negation)과 quantifier의 범위(scope)에 관련된 것으로 해례 (12)는 G. Lakoff가 B.H. Partee에 대해 (Repartee)이런 예를 들어 한 설명으로 아는데 여기에는 L. Horn이 분석했던 *only*의 전제(presupposition)부분이 함께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Only Muriel voted for Hubert. 이 문장을 Muriel voted for Hubert.와 No one other than Muriel voted for Hubert.이라는 두 문장을 전제로 유도한 것인데 McCawley같은 *only*를 일종의 quantifier

로 취급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해례 (13) 역시 양화사 와 관련된 것으로 접속사소거(conjunction reduction) 외에도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양인식 : 해례 (13)에서 a, b는 non-synonymy이고 c, d는 synonymy라는 내용입니다.

사 회 : definite하고 indefinite한 것과의 차이점으로 보시는군요. 해례 (14)는 McCawley가 즐겨 쓰는 예문인데 양인식 선생께서 말씀 하시죠.

양인식 : 애매성(ambiguity)과 관련된 문제인데 그러면 어떤 두가지 뜻이 있는가 하면 contradictory reading과 constant reading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부인할 때와 자신이 말한 것을 인용해서 부인하는 두가지 뜻을 의미합니다. 이런것을 McCawley가 tree diagram을 생성론의 입장에서 도해했는데 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 Hasegawa입니다. 그는 그렇게 할 필요 없이 화자(speaker)를 해석해 주면 누가 assertion했느냐에 따라 간단히 처리되는데 복잡하게 할 필요가 무엇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McCawley가 (14b)를 내놓으면서 (14b)에는 두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 뜻이 있는데 해석론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된다고 반격을 가한 것입니다. 그러나 해석론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어떤 대안이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Postal이 Linguistic Inquiry에 쓴 "On certain ambiguity"라는 글에서 Hasegawa가 주장하는 화자를 가지고는 안된다고 분석하였죠. 그원인은 만약에 핵문의 주어(matrix subject)가 사람인 경우 Hasegawa의 주장대로 해석이 가능하지만 사람이 아닌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어 그때는 해석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생성론 쪽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 회 : (14)에 대해 좀 덧붙이면 (14a)에서는

문장의 뒷부분인 the girl who he kissed에서 be kissed라고 화자가 assert하는 경우 하고 Max 자신이 assert하는 경우 두가지인데 Max자신의 경우라면 contradiction이 되므로 어불성설이란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14b)에서 so does Fred가 뒤에 따르면 McCawley의 주장대로 되어 세 가지의 reading이 나오게 되어 Hasegawa식 해석으로는 설명하기 힘들고 tree structure로 하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양인식 : 해례 (15)의 look for의 경우 보통 한가지 뜻만 있는 것으로 알지만 두가지 뜻이 있어서 하나는 referential이고 또 하나는 attributive입니다. 전자는 마음속으로 이미 알고 있는 사람에게 쓰이는 것이고 후자는 막연히 알 수 있을 때 쓰입니다. 이러한 ambiguity를 Quine은 transparent reading과 opaque reading으로 구분하였고 K. Donnellan은 referential과 attributive등으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사 회 : 여기서는 또 look for를 해체분석(decompose)하는 문제도 나올 수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김한곤 선생께서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김한곤 : John is looking for a secretary who knows Mongolian.과 John is trying to find a secretary who knows Mongolian.에 각각 2가지 뜻이 있다고 합니다. 양인식 선생께서 말씀하신 의미해석이란 점을 떠나서 논의하고 싶은데, 양쪽의 학자들이 논쟁하는 가운데서 만일 이것을 구절표시로 기지구조를 잡았을 때 look for를 try to find로 해체분석한 경우 그것이 위의 예문과 아래 예문의 기지구조로 보는 경우에는 양쪽에 두가지 애매성이 다 표시됩니다. 그런데 만일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안 되므로 생성론에 유리한 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양인식 : look for를 try to find로 해체분석하면 try의 scope가 달라져 즉 secretary의 의미가 달라지므로 생성론에 유리한 예문으로 인용되고 있죠.

박병수 : 가령 Jackendoff가 하는 식으로 a secretary에 specific reading이 있고 non-specific reading이 있는 것으로 나누면 look for 같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John wants a secretary.에서도 비슷한 애매성이 나올 것 같은데 따라서 look for를 want, desire와 같은 동사로 보아 그러한 동사가 있을

때는 *a secretary*가 크게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해석규칙이 있으므로 이런 식으로 하면 별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양인석 : Jackendoff가 그의 논문에서 문맥을 들로 나누는 식으로 하여 많이 발전시킨 것이 있죠. 그러므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정민 : specific, non-specific이 자질로서 순수한 성질이 무엇이나를 추구해가면 생성론에서 말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 됩니다.

박병수 : 같은 현상이겠죠. 언어현상은 같은데 설명하는 방법이 다른 것이겠죠.

사 회 : 해례 (15)는 영어에서 *a secretary*일 때 부정관사 *a*에서 specific, non-specific 즉 referential, non-referential로 나오지 않는데 나전이 같은 경우는 뒤에 *who*이하의 절에서 하나는 가정법(subjunctive mood)을 쓴다고 McCawley가 R. Lakoff의 예를 들고 있죠.

양인석 : specific, non-specific이 소련어에서는 대명사에 표시됩니다.

이홍배 : 그런 예는 많습니다. *a*가 [±specific]을 가졌다고 하는 것 하고 *look for*를 *try to find*로 해석을 할 때 생성론은 그렇게 하다보니 자동적으로 *look for*와 *try to find*를 설명을 한 것이고 해석론은 또 다시 *try to find*를 설명을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사 회 : 다음은 focus의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해석론과 생성론의 입장을 양동휘 선생께서 말씀해 주시죠.

양동휘 : focus 문제에 들어가기 전에 해석론자와 생성론자의 문제점을 제 나름대로 말해 보겠습니다. 생성론의 기본적인 가정은 첫째로 기저표시가 곧 의미표시가 된다는 것이고, 둘째는 의미표시가 통사론의 심층구조와 같은 것이며 또 구조적이라는 것이고, 세번째로 어휘변형(lexical transformation)에는 소위 Chomsky형의 변형이 있고 또 하나는 선어휘변형(prelexical transformation)이라 하여 어휘해체분석해 놓은 구조에 걸리는 변형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와 둘째를 motivate함으로써 첫째에 대한 이상적인 가정으로 전체적인 motivation이 된다면 이것을 매력적인 것으로 수용하여 인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형식론(formalism)의 이상이고 형식론이 완전히 motivate되어야 할 것

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은 형식론에 의존하고 형식론에 대한 것에 달려 있는데 이 motivation에는 세가지 motivation 즉 (a) necessity argument (b) generalization argument (c) possibility argument가 있다고 보는데 a, b는 합적선이고 c는 이에 미치지 못한다고 봅니다. 즉 a는 의미표시가 구조적이며 어휘변형과 선어휘변형에는 형식적 차이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고 b는 앞애와 같이 함으로써 일반화가 가능하다고 보며 c는 해례 (6)의 *hay*와 같이 생성론도 해석론과 같이 할 수 있다는 가능성 논의입니다. 생성론에서는 global constraint 이외에 여러 방법이 나왔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변형이 강하기 때문에 possibility는 논쟁거리도 안됩니다. presupposition, topic, focus, definiteness와 같은 비논리요소를 기저구조에 넣어 거기에 여러가지 변형이나 global derivational constraints를 적용하여 기저에 있는 논리요소와 연결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모두 possibility argument예요. 그러나 definiteness같은 비논리요소는 Karttunen이 네가지로 나누고 있지만 그중 common understanding에 속하는 *Mary went to the beach*에서 *the*를 써서 definite하게 하는 등, 사람의 믿음이나 생각하는 세계를 구조적으로 나타낸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실제로 G. Lakoff가 불가능한 것을 자꾸 넣는 것 같아요. conveyed meaning같은 것도 어떻게 구조적으로 하느냐 하는 것인데 만일 구조적으로 못 하면 모든 의미표시가 구조적이라는 주장이 무너지고 생성론의 본래 주장이 그만큼 약해집니다. 그럼 focus 문제로 들어가서 *Is John certain to win?*을 보면 (17a, b, c)가 (16)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다고 Chomsky가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well-formed question과 answer가 되려면 문답자들이 공통된 presupposition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6)문장을 (17a, b, c)로 답할 수 있다는 것은 (16)이 (17a, b, c)가 갖는 presupposition 세 가지를 포함한다는 그런 결론이 되는데 Chomsky가 말하는 것은 surface constituent를 여기 구별한 것처럼 잡으면 자연스럽게 (17a)의 경우는 *John is certain* 까지가 presupposition 되는 것이고 *lose*가 focus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16)에서 보면 맨 가운데 mostly embedded된 *to win*만 focus가 되고 나머

지는 presupposition이 된다고 가를 수 있습니다. (17b)의 presupposition은 *John*까지이고 (17c)는 presupposition이 없는 경우입니다. 그래 Chomsky가 말한 것은 이와같이 surface에 의해 이 focus와 presupposition의 한계를 분명히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G. Lakoff가 (16)의 심층구조를 (18)같이 잡지는 않지만, 일단(18)같이 심층구조를 잡기 위해서는 (18a)를 논리구조, (18)의 b,c,d등을 presupposition으로 보기로 합시다. (16)이 (17)에서 보는 바와 같은 component constituent가 세개 뿐이라는 데서 세가지 presupposition을 가졌다는 것이 된다는 것이 Chomsky의 말입니다. 세개 이상의 presupposition이 어려운 것이 constituent가 세개니까 게다가 constituent의 내용이 Chomsky식으로 하면 (16)이 반드시 세개의 가정을 가져야 하고 다음에 그 가정이 바로 constituent structure에 따라간다는 것점이 있는데, G. Lakoff식으로 하면 a,b,c,d,e가 다 돼야하는데 (b), (d)는 괜찮지만 (c), (e)는 안됩니다. (b), (d)만 맞고 (c), (e)는 틀린다는 사실을 어떻게 나타내야 하는가? G. Lakoff식의 생성론에서 말하는 방법이 너무나 많은 ill-formed structure까지 허락하지 않는가? 결론적으로 strong assumption을 안고 고민하느니 비논리구조를 여기서 빼던지 비논리요소를 구조적으로 나타낸다는 무리한 욕심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는 것이 어떨겠느냐는 것이 대안은 없지만, 저의 주장입니다.

사 회 : 긴 말씀만큼 많은 의견이 오갈 것 같은데 이정민 선생께서 간단히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정민 : 비논리구조와 논리구조를 구별해서 비논리구조를 기저구조에서 제외해 버리는 것이 차라리 생성론을 구하는 길이 아니겠는가 하는 의견인 것 같은데요.

양동휘 : 아니 structural하지 않게...그러니까 All semantic representations are structural에서 all을 빼자는 것입니다. 비논리적 의미(non-logical meaning)들을 우리 문법에서 배제하자는 말이 아니라 다만 그것들을 논리적 의미(logical meaning)의 경우와 같이 구조적(structural)으로 기저구조에 설정하기에는 지금까지의 증거가 너무도 미약하다는 것입니다. 논리적 의미를 구조적으로 설정해야 하

니까, 비논리적 의미들도 구조적으로 설정해야 한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G. Lakoff 식으로 모든 비논리적 의미까지 전부 기저구조에 설정되어야 한다면 우리 문법가운데 종래의 수의규칙(optional rule)의 개념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동의성은 수의규칙에 의해 포착된다는 이론이 수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정민 : 그러한 애진데 언어기술에 linguistic description)있어서 우리가 형식론을 추구한다면 결국 논리구조가 구조적이니까, 비논리 구조도 구조라면 역시 구조적이라는 것이 이상적이 아니겠습니까?

양동휘 : 그럼요. 그것이 이상이지요.

이정민 : 그리고 그것은 linguistic representation이 가능하려면 그것이 구조적이어야만 하니까 presuppose되는 부분 혹은 presupposition으로 묶어버리면 하여튼 그부분도 논리구조와 같은 구조를 가져야 하겠다, 그런데 어려운 점이 definiteness의 표시랄지 혹은 immediate environment에서 우리가 얻는 definiteness의 표현 등이 과연 구조적 표시로 빨리 될 수 있느냐 그런 전제는 반드시 definiteness를 전제로 하기 위해서는 그전에 어떤 environment가 있거나 existential presupposition이 있든지 반드시 무엇이 앞에 있어야 definiteness가 register되는데 register되기까지의 관념은 역시 structural하게 predicate로 표시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기저구조에서 논리구조와 비논리구조가 달리 표시되는 것은 찬성입니다. 그리고 논리구조를 G. Lakoff는 오른쪽에 표시했는데 전 왼쪽에 표시해야 옳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pre-existing events의 관념은 대개 논리구조에 앞서기 때문에 직선상으로는 왼쪽에 있어야만 논리구조를 조절해 준다 말이지요. 그래서 왼쪽에서 표시돼 주어야 우리가 추구하는 언어학의 이상에 좀더 가까워진다 하겠지요. 물론 그것이 너무 강력해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까지를 나타내게 되므로 그러한 예를 든 것인데, 실체는 어떤 제약조건에 의해서 걸러진다는 전제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유도하는 과정에서 비문법적이고, 불필요한 것이 제약조건에 의해 걸러지므로 얼마나 보충을 잘 하느냐는 문제만이 남는 것이지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전혀 방지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결국은 가능성(possibility)의 이야기가 돼서 조금 약한 것 같은 인상을 주는데 가능한 것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겠지요. 그리고 추상성(abstractness)의 문제가 있는데 작년에 P.Kiparsky와 잠깐 이야기 할 기회가 있어서 통사론에 있어서 추상성의 문제에 관해 이야기 했는데 그의 이야기도 의미표시를 기저구조에서 보면 바로 그것이 의미해석이 되니까, 그것처럼 구체적인 게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해석론에서는 통사구조를 보고서 거기에 자꾸 해석을 덧붙여야 하는 고충이 있는데 비해 생성론에서는 의미표시를 보면 바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고충이 없다. 그래서 R. Lakoff의 “Abstract Syntax and Latin Complementation” 이야기를 했을 때 “Abstract Syntax”로 이름을 붙인 것은 불행한 일이다. 차라리 “Concrete Syntax”라고 붙이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Postal에게 들었다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결국은 의미표시와 표면과의 간격이 추상성이 더해감에 따라 점점 멀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과연 directionality의 차이에 불과한 것이냐는 좀더 살펴봐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양인식: 양동휘 선생께서 생성론을 살리는 방향으로 제안을 하셨는데, 결국 복잡한 것은 떼어내고 할 수 있는 것만 나타내자는 식이 됩니다. 그러던 그것을 지금 누가 하느냐 하면 해석론이 하고 있죠. 복잡한 것은 해석으로 하고 간단한 것은 결국 점점 표면으로 올라와 버려서 1965년보다 지금 아주 거의 같게 되었습니다. 결국 해석론을 따라가자는 제안과 거의 같은 것 같습니다.

사 회: 해석론, 생성론에 대한 찬반의 가치가 분명해지는 것 같은데 박병수 선생께서 말씀 좀 하시지요.

박병수: 의미표시가 근본적으로 structural해서 tree diagram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생성론의 근본적인 전제라고 했었는데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한가지 제안이 거기서 비논리적인 것은 structural하지 않으니깐 빼자는 제안이신데 그런데 presupposition이나 focus 같은 종잡기 어려운 것만 non-structural한 게 아니라 양화사 같은 것도 자연언어에서 나타나는 양화사와 논리에서 얘기하는 것과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아서 자연언어에서 나타나는 것을 symbolic logic에서의 양화사를 처리하는 식으로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는 말이에요. 역시 Jackendoff 애긴데 정확한 예문이 될지 모르지만 I told three of the stories to many of the boys. 와 I told many of the boys three of the stories.에서 결국 간접 목적어를 앞에 혹은 뒤에 두느냐의 차이인데 직접목적어, 간접목적어에 각각 양화사 three와 many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문장에서 many of the boys가 multiple interpretation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고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야기 세개를 여러 아이들한테 각각 해주었다는 이야기가 되고 non-multiple interpretation이 되면 같은 그룹의 아이들에게 똑같은 얘기를 해주었다. 즉 아이들은 같은 세가지 얘기를 다 들은 거죠. 이런 식으로 multiple한 경우와 non-multiple한 경우가 의미가 달라서 그런 경우 앞에 있는 것이 뒤에 오는 것을 집약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many of the boys를 앞에 놓고 three of the stories를 뒤에 놓으면 반대로 many of the boys는 고정되고 three of the stories를 똑 같은 이야기 세가지가 되느냐 혹은 각기 다른 세가지 얘기가 되느냐로 문제가 생겨 애매성이 있는데 이 두가지가 한가지 의미를 공유합니다. 즉 three of the stories도 똑 같은 세가지 이야기고 many of the boys도 똑 같은 그룹의 소년이라 할때 이런 경우가 logical calculus로 결국 거기서 나오는 quantifier가 higher verb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는 표현이 안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higher verb가 non-multiple을 결정한다면 한가지씩은 따로 되는데 두가지 모두 non-multiple인 경우는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야 하느냐? 기호논리학의 원리를 이용해서 나온 그림이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상위양화사(higher quantifier)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한가지 양화사도 자연언어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기호논리학에서 그대로 표시가 되지 않는 이유라고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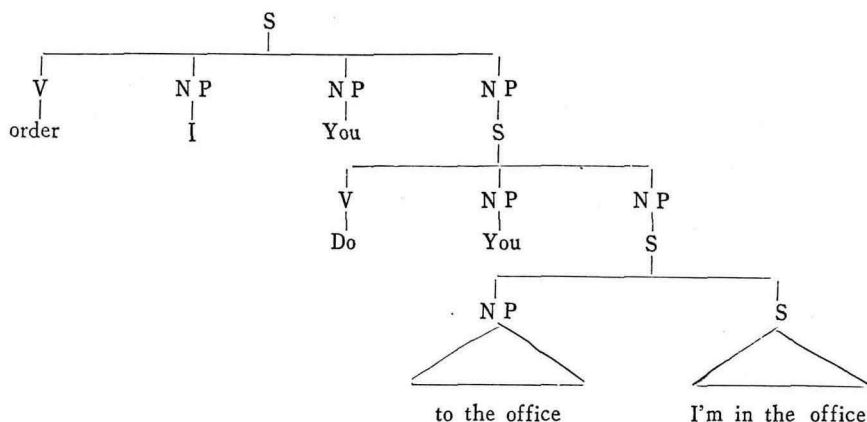
사 회: 구조문제에 관한 논의에서 presupposition, focus같은 비논리적 구조가 어떻게 다른 것이냐하는 것이 논의되었고 박병수 선생께서 quantifier도 그런 점에서 역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한가지 presupposition하고 관련시켜 하고 싶은 것은 아까 양동휘 선생께서는 focus와 presupposition의 구별을 Chomsky 식으로 표면구

조에서 focus 는 intonation의 중심부이고 그외의 것을 presupposition이라 얘기하였는데 Katz는 이와 같은 것은 요새는 presupposition과는 다른 assumption이니 presumption 이니 해서 별도로 rhetorical component 를 설정해야 한다 하며 자신의 표준이론(standard theory)을 고수하고 확대 표준이론(extended standard theory)을 배척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해례 (19)에서 보통 말하는 presupposition (19a)에는 (19b)의 presupposition 이 있다는 것이었는데 만일 (19a)에서 강세를 *wife* 에 주든지 *beating*에 주든지 하면 거기에 나오는 Chomsky식 presupposition과 본래의 (19b)의 presupposition과의 문제는 어떻게 되겠느냐는 문제가 생기겠지요. (20)의 예문에서도 역시 강세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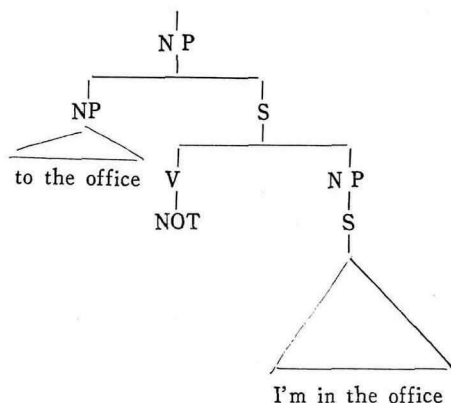
제가 topic과 contrastive focus의 관계가 있겠는데 시간 관계상 토론에서는 제외하기로 하죠. 마지막으로 deixis문제를 논의하고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청중석에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받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해례 (21)의 *come*, *go*에 대한 문제가 deixis문제인 것 같은데 양인석 선생께서...

양인석 : *come*과 *go*에 대해서 원칙적인 deixis는 화자(speaker)나 청자(hearer) 있는 쪽으로 간다면 누가 되든 관계없이 동사 *come*을 쓰고 청자·화자 외의 다른 곳으로 가면 *go*를 쓴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러한 deixis의 지식을 이용하여 (21a)의 문장을 생성론의 입장으로 도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1a) Come to the office.



(21b) Go to the office.



위와 같이 도시되어야 deixis를 포함한 생성론의 정당한 표시가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있어야 그쪽으로 *come*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므로 *office*는 어디에 누가 있는 곳이나 하면 내가 너한테 명령하는 것이니까, 내가 있는 *office*라는 것이 선정되어야 할 것이며 결국 *come*은 동작동사이므로 어디로 움직이느냐 하면 내가 있는 *office*로입니다. 이렇게 해체분석되는 게 합리적이겠습니다. 만약 *go*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다음 그림을 참고하십시오.

즉 *go*면 NP만 달라집니다. 내가 있지 않은 *office*이어야 *go*가 되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 생성론의 입장에서 deixis의 information까지 포함해서 Go to the office, Come to the office

를 단순히 「가다」, 「오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것이 모든 상황을 나타내지 않겠느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정민 : 그런데 표현방법에서 NP에다 S를 매달아 놔서 relativization을 거꾸로 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것보다는 그것을 논리구조와 같이 놓으면 나중에 소거를 한다든지 어휘화를 할 때 작용이 된다든지 할 적에 나타나겠는데 결국 그것을 오른쪽에 그렇게 매달아 놓을 것이냐 그것이 presupposition이라는 형식을 어떻게 표현해 줄 것이냐—P. Kiparsky는 점선으로 묶었는데—표현방법이 좀 달라야만 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겠지요. 똑같은 status를 갖지는 않으니깐, 그 구조가 또 왼쪽에 설 것이냐하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사 회 : 양인석 선생께서 *come, go* 분석을 재미있게 하셨는데 이것을 갖고서 정리해 보지요. **생성론** 입장에서 위의 도해식으로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 일견 복잡하고 어느 부분이 presupposition이고 표면구조하고 어떻게 연결될 것이냐 등 문제를 삼을 수 있겠으나, **해석론** 입장에서는 이런 구조에 표현된 내용은 표면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이홍배 선생께서 말씀하셨듯이, 해석론의 규칙으로 처리하면 Katz가 자신을 옹호하며 주장하는 것처럼 **생성론**을 거꾸로 하면 **해석론**이고 **해석론**을 거꾸로 하면 **생성론**이라 하는 견해도 나오겠습니다. 물론 본래 projection rule이 저렇게 구조적으로 된 건 아니었다고 G. Lakoff는 말하고 있는데 **생성론**식으로 구조를 표시하면 이정민 선생께서도 말씀하셨지만 concrete한 구조표시가 되고, 반면에 **해석론**식으로 syntax를 간단하게 하면 lexicon이 복잡해지고 따로 의미해석규칙이 어떤 형식을 취하든 필요해진다는 이야기로 귀착되지 않나 봅니다.

박병수 : *come*의 차이점이 전화 대화에서는 나타납니다. 전화에서는 자기가 거기 있지 않고 그곳으로 가는데 I'll come over to you. 하거든요.

이정민 : 거기에는 또 내가 있는 곳이 아니고 네가 있는 곳이란 presupposition이 있지요.

양인석 : 그게 아니고 *come, go*의 deixis는 화자, 청자가 deixis의 중심이 돼요. 움직이는 사람이 누구든지간에 화자나 청자쪽으로 움직이면 *come*이고 아니면 *go*입니다.

사 회 : 영어는 그렇지만 한국어에서는 안 그렇지요.

양인석 · 이홍배 : 우리 말은 다르지요.

양인석 : 화자와 청자가 누가 되었던 청자 화자를 deixis에 놔두고 mover가 청자·화자 또는 제삼자가 되든 상관없이 청자·화자쪽으로 움직이면 *come*입니다 그런데 idiomatic할 때는 달라져서 normal state이면 전부 *come*입니다. *come to ones' senses* '회복했다.' 그리고 abnormal할 때는 전부 *go*를 씁니다. *go mad*하면 '미쳤다' 그러죠.

사 회 : 토론자들간의 토론은 이 정도로 하고 청중석에서 오늘 토론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호 : 아까 동의성(synonymy)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생각하신 바를 진지하게 얘기해 주셨읍니다만 이해하고 있는 내용은 각각 다르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국어뿐만 아니라 제 생각에는 현대는 가히 polysemy의 세계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한 단어가 한가지 뜻만 가진 monosemy는 찾을 수 없다고 봅니다. 언어변화중에 가장 많이 변하는 것이 제가 보기는 단어 어휘들의 내용과 그 외적인 명칭자체가 많이 변하므로 사실상 의미의 일치 즉 동의성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인중뿐만 아니라 언어학 자체에서도 동의성을 쓰고 있기 때문에 동의성의 상대적인 존재를 인정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시 언어학에서 표현은 같지만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각 학과가 공통으로 의미하고 있는 내용을 어떻게 달리하고 있는지를 먼저 명백히 하고 넘어가야만 어떤 토론이 가능한 공통 출발점이 있지 않겠는가를 말씀드리고 싶고 Chomsky이래의 새로운 학파는 언어기술의 자료를 주관적 판단에서만 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크지 않은가, 그래서 극단으로 그것을 확대시켜 보면 변형생성문법학파들은 모든 언어현상에 주관적인 판단을 개입함으로써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언어체계를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옳다고 생각하는 언어체계를 기술함으로써 종래의 언어학이 강조해 온, 언어학자들은 절대로 규범적인 일은 행할 것이 아니라는 그런 경고를 무시하는 위험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극대화되어 나가는 이것이 옳은 어법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는 즉, 그것을 옳은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쉽게 행해진다는 점, 또 이정민 선생의 발

표를 감명깊게 들었습니다만, 선생께서 든 예문중에, 대화에서 1인칭이 '자기'로서는 나타낼 수 없는 내용들이라 했지만 화법의 변화에 따라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문에 어느 문장이 성립된다 안된다는 데에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하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지 않은가 봅니다.

사 회 : 처음 질문은 동의성의 문제에 관해 뚜렷한 발판에서 서서 얘기가 진행되었으면 하는 것이고, 들 때는 변형생성문법에서 언어재료를 다루는데 주관적인 판단이 너무 개입되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동의성의 문제는 무척 중요한 문제인데 이기용 선생께서 철학적인 관점에서 동의성의 문제를 고찰해 주심으로써 끝을 맺으면 좋겠습니다.

이기용 : 최근에 읽은 어떤 글에서는 동의성을 기준으로 해서 문장을 분석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 상당한 과오를 범하고 있다고 하며 우리가 아직 정의도 내리지 않았는데 '그렇게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보는 견지에서 동의성은 학문에서 말할 때는 정의된 용어입니다. polysèmy는 lexical ambiguity의 문제인데 단어가 여러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은 지금 논의하는 생성론에서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해체분석의 문제가 있지만 해체분석의 경우에도 kill을 해체분석할 때 kill에 두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까지는 다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논리학자나 언어학자 모두 고민하는 것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나 단어의 polysemy 문제들인데 이를 체계적으로 해 주었으면 문제가 없었으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문장의 truth condition같은 것을 논해 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합니다. 왜 그런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Come to the office. 도 있습니다만 Come to the office, but I'm not in the office. 이렇게 되면 contradiction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contradiction이란 개념은 논리학에서 다루는 문제인데 양인식 선생처럼 풀어 놓으면 알지만 그렇지 않으면 Come to the office. 와 I'm not in the office. 하고가 contradiction이라는 것이 수학적으로는 증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come의 뜻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고민하고 있으나 그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한 듯하고 polysemy라든가 lexical ambiguity 문제는 앞으로 먼 장래에나 다루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덕호 : 그것이 아니라 동의성이라 할 때는 어

떤 한 단어에 대한 다의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2개 이상의 단어를 서로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것으로 둘 다 그것이 항상 존재한다. 다만 그것이 어느 정도가 같으나 공통점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 이것을 어느 정도 선정을 해야 토의대상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완전한 동의어는 없다고 봐야겠지요.

이기용 : 같은 말씀입니다. 단어 A와 B가 같은 reference를 지적해 준다고 합니다.

이덕호 : 그러나 coreference라는 것이 엄격히 말하면 있을 수 없는 것이지요.

이기용 : 그러니까 가정하는 것입니다. 가정할 때 A와 B는 같은 reference를 가지고 있다 하고 referential logic을 건너가지고 intensional logic으로 들어가 A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와 B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모두 같다고 보고서 하는 것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어휘(lexical item)와의 관계라든가 어휘가 가진 여러 의미는 현단계로는 생각들은 많이 하지만 손대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덕호 : 결과적으로는 공통영역이, 즉 완전히 일치하는 두개의 단어는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이겠지요.

이홍배 : 단어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기용 : 그러니까 synonymy가 예를 들어 A라는 단어와 B라는 단어의 관계가 아니라, A라는 문장과 B라는 문장과의 관계를 뜻하는 용어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덕호 : 같은 이야기 같읍니다만.

이홍배 : 아니죠, 다릅니다.

이기용 : synonymy의 정의가 나오는데 A와 B가 같다(synonymous)는 것은 무슨 뜻이나? A와 B의 truth condition이 같느냐 하는 문제는 A, B가 truth condition이 같으면 synonymous한데 그럼 A, B가 truth condition이 서로 같다는 것을 어떻게 판정하느냐가 또 문제가 됩니다. 그 안에 집어 넣는 소위 points of reference가——여기 항목(8)에 나왔읍니다만——그 안에 무엇을 집어 넣느냐 그안에 deixis 앞에 나온 문장 혹은 presupposition을 집어 넣느냐 이렇게 집어넣으면——Robert Stalnaker도 그렇고 David Lewis도 그렇습니다만——index가 10개 이상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A가 가진 truth value가 무엇이냐를 지정하기 위한 요소가 10여개 되는데 그안에 무엇을 집어넣느냐는게 과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생성론**으로 돌아가면 근본적으로 말해 그들은 logic을 긍정정적으로 받아들여 쓰기 때문에 논리표시를 해주면 의미해석은 논리학자들이 다 해내므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Jackendoff도 논리학을 공부한것 같습니다만 1972년 개정한 논문을 보면 팔호도 쓰고 modal projection rule이니 해서 많이 만들어 냈지요. 그러면 그것들을 설명해 주어야 하는데 설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동의성도 논리학에서는 한 줄로 정의가 된 것입니다. Sentence

A and sentence B are synonymous if A and B mutually imply. 그럼 imply가 무엇이냐는 정의가 또 나오고 하겠지만, 이렇게 되는 것인데 Jackendoff가 전혀 모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자꾸 좀 다른 방향으로 흘러나가고 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사 회 : 예정된 시간을 넘도록 진지한 토론을 갖게 된 것에 대해 토론에 참석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과 방청해 주신 여러 선생님께 감사드리며 언어이론분과토론회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록 : 金京勳 · 李世子)